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入學難問題를 再論함 特히中等、專門學校에 對하야

一

學年初를 當하야 入學生들의 受驗問題로 入學生及 學父兄의 애를 태우는것은 朝鮮의 年中行事다. 初等學校에 있어서까지 入學試驗을 보아야 入學不入學을 決定할수있다는것은 朝鮮에서만 볼수있는 現象으로 義務敎育의 即時 實施를 이미 主張하얏거니와 中等、專門以上의 入學率도 다른 社會에 比하면 莫大한 記錄으로 이에 對한 對策이 있지아니치못할것이다。

二

昨十八日現在 本社에서 調査한 京城市內 各中等學校以上 入學率을 보면 적으면 二倍半 만흐면 十倍의 志願으로 그야말로 混戰狀態를 呈하얏다。이 十倍의 志願者中에는 二重、三重의 志願者가 잇는때문이나 實際로收容人員과 志願者를 比較해 보드래도 後者가 前者의 五倍以上을 超過할것은 疑心치 안는다。特히 專門學校에 있어서는 二重、三重의 志願이 거이 不可能한것이기때문에 五、六倍라는 數字가 全收容人員과 志願者의 比例라 해도 無關할것이다。그러므로 京城의 中等學校及 專門學校는 現在의 五倍의 收容力이잇서도 오히려不足하다해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三

今年에 와서 中等 專門學校의 收容力이 極히 不足한것을 깨닷게된것은 前年에 比하야 一般으로 景氣가 好轉하야 志願者가 增加한데도 原因하얏지만 年內로 學校及 學級의 增設이 적은것이 大原因이다。昨年、再昨年에도 入學志願者는 事實上 收容할수잇는 人員의 五、六倍를 超過하얏섯다。그러나 官、公私立을 莫論하고 最近 中等、專門學校의 增設은 적엇다。公立高等普通學校는 大正十四年 十五校로된 爾來로、私立高普는 昭和六年 十一校로된 爾來로、官立專門學校는 大正五年 五校로된 爾來로 一個도 增設되지안헛다。그間 公立高普校及 私立高普에 잇서서 若干 學級이 增加햇다 하드래도 滔滔한 入學志願者의 激增의 勢를 緩和할수는 업섯다。이 點으로 보면 當局의 中等以上 敎育에 對한 留意가 不足햇다는 責任을免치 못할것이다。

四

이에 對하야 當局은 或은 일업시 中等、專門以上 學校만 만히 設置하고、그 卒業生에게 職業을 求해주지 안는다면 不平만 사고말지니 차라리 學校를 制限함이 낫다고 辯明할지 모른다。그러나 이런 理論은 當局의 朝鮮人 敎育에 對한 無誠意를 表示함에 不過할지니 첫재 當局의 말과가티 卒業後의 就職問題를 論한다면 좀더 日本內地人의 就職을 制限하고 朝鮮人의 就職을 周旋함이 어떠한가。今年도 日本內地서 多數한 簡易學校敎員을 移植한다하고、在來 專門以上 學校에는 三對一의 比例로 朝鮮人을 적게 入學시키지만、이대신 朝鮮人의 入學者를 만히 許하고、專門學校에 朝鮮人을 多數入學시킴이 어떠한가。둘재 敎育은 就職을 目的하는것이라 생각하는것이다。高等普通敎育은 常識敎育이라、밥벌이 就職을 目的한것이 아니다。公民될 資格者를養成하는것이 普通及 高等普通敎育의 根本이다。그러므로 職業을 못어더 不平을 말한다 하는말은 當치안타。

五

勿論 日本內地가튼데서는 高等敎育이 만허서 縮小說이 나왓지만 朝鮮은 그程度에까지이르지못햇다。그것은 日本內地에 朝鮮人으로 專門以上 留學生이 四千을 算하는것을 보아 新聞할수잇다。況 中等敎育의 不足에잇어서랴。그러므로 當局은 다른冗費를 節約하고、新設學校를增設 或은 增級하야 時代의 要求에 應해야할것이니 吾人의 見地로는 高等普通學校及 專門學校는 現在의 倍數를 增設하고 專門學校에 잇어서는 朝鮮人의 收容을本位로할것이다。

獨逸의再軍備宣言 佛國絶對로反對

境遇따러、聯盟理事會에提訴

英外相은特別總會要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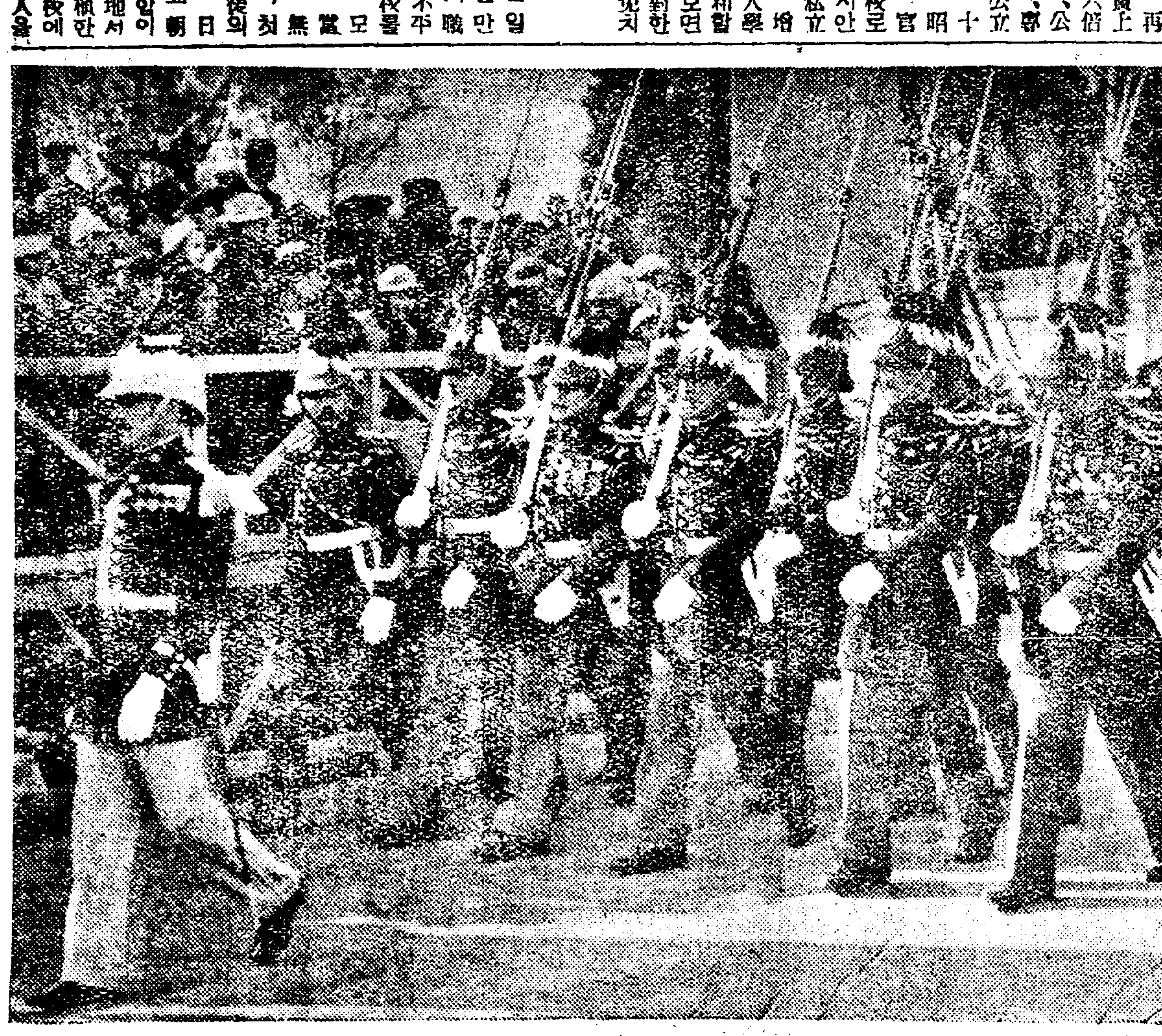
【巴里十八日發聯合】獨逸政府가 再軍備宣言을 發表한以來 佛國政府는 英伊兩國政府를 動하야 共同動作을 企圖하고 小協商國과 蘇聯政府와 提携하야 獨逸包圍의 外交工作을 進行하고잇는데 對策의審議는 專혀 首相프랑당氏와 外相라발氏와의 사이에만 行하고 二十日午前九時부터 緊急閣議를 招集하고 最後的斷案을 내리기로되엿다 佛國政府로서는 獨逸政府今回의行動에 對해서는 絶對反對의立場을 堅持하고 곳까지 英伊佛三國政府의 共同動作에 出할方針인데 다시 第二段의措置로 聯盟理事會에 提訴할境遇도 考慮하고잇는것으로 觀測된다

【壽府(제네브)十八日發】英國外相싸이먼氏가 英下院에서獨逸의今回宣言에 對한善後策에 關하야 獨逸에依해서는 聯盟의 特別總會를要請할는지도 모르겟다고 聲明한것은 聯盟側에多大한 센세이슌을 惹起하엿다 即聯盟은 英國의이行動은獨逸에對하야 列國을總動員시키려고하는것이라고 解釋하고잇고最初聯盟規約第一條第二項에依하야 秘密會를 召集하는지 或은다시금權限을가진 總會를 開하기로하고 차로問題審議를爲하야 五月二十日開會할豫定인 特別總會를利用하야聯盟加盟의五十八個國에게 意見表示의機會를與하야 速히與論에依하야決할것이라는 意見도잇섯는데 英國外相의下院에서한聲明이 或은實現될는지도모르겟스므로 聯盟으로서는 그推移에多大한 注目을하고잇다

獨逸今日態度는 隣邦諸國의責任 獨外務省非公式表明

【伯林十八日發聯合】英國政府의照會에對하야 欣然應諾을 回答한後獨逸外務省은 伯林會談에關하야非公式으로 如左한見解를表明하엿다

英國政府는 二月三日의倫敦宣言을基礎로會談을 遂할用意가잇느냐고 照會하엿는데獨逸政府는欣然應諾하엿다 英國政府는一方的行動으로 軍事의義務變更은할수업다고하는 倫敦宣言의主旨에關한 獨逸政府에對한注意에關해서는 十六日의히틀러總統의 宣言에明白한바와가티獨逸政府로서는 隣接諸國이베르사이유 條約不履行의責任을負치안흐면 아니되나고생각하고잇다 英國代表가伯林을訪問하고 히틀러總統과會談하게되면이로서 一切은充分히討議될것으로보힌다 그러나 佛하는바와가티 會談은곳까지對等二國會談으로 하지안흐면 안된다 伯林會談으로서 國際平和와促進國際政局의緊張을 解消하는役割을 하라고 希望하는것은 當然한것으로 獨逸政府는絶對他國에뒤지는者가아니다



世界最少의陸軍

…賭博으로有名한『모나코』는 世界에第一적은나라이지마는 이곳에도 軍隊가잇다 寫眞은 首都모테칼로市街를 進行하는 모나코의 步兵隊인데 總兵力은 (勿驚)一百! 그러나 人口二萬에對한 比例로보다면 世界에몃재안가는 大陸軍國이다 이제그裝備을 본다면 小銃以外에 大砲一門바게업다하며 그것도 國王誕日에發射하는 祝砲以外에는 使用하는일이업다한다……

汪行政院長 孔、宋兩氏와協議

【上海十八日發聯合】行政院長汪精衛氏는 十八日朝南京으로부터 上海에到着하야 財政部長孔祥熙氏宋子文氏와 會見後同日夜孔財政部長同道南京에 歸還하엿다借款問題에 關聯하야 重要協議를 遂한것으로 觀測된다

朝鮮事業公債法 委員會서可決

【電通東京電話】貴族院의朝鮮事業公債法中 改正法律案委員會는 十九日午前 十時十一分開會、岩村一木男(公正) 大谷尊由氏(研究)로부터 簡單한質疑가잇슨 다음 討論에入하야 柳原義光伯(研究)으로부터 다시 意見을陳述한後採決한 結果全會一致로 可決되엿다

『에디오피아』國政府 國際聯盟에遂提訴

伊國政府는依然直接交涉을主張

國境紛爭問題尙未決

【羅馬十八日發聯合】國境紛爭에關하야 에디오피아政府는 十七日規約 第十一條에基하야 聯盟에 提訴하엿는데 伊太利政府는 依然直接交涉을主張하고 十八日아디스아베바駐箚公使기름지氏에 對하야 交涉再開를訓令하엿다

滿國石油專賣法 四月十日施行決定

【電通新京十九日發】滿洲國石油專賣法은昨年十一月十四日公布以來施行準備中이든바 마침내完了를告하엿슴으로 來四月十日을期하야施行하기로決定하엿다

『루마니아』外相 佛白을訪問

【브카레스트十八日發聯合】루마니아外相은 來週브카레스트를出發하야 巴里브랏셀兩首都를 訪問하고 獨逸政府의 再軍備宣言에關聯하야 佛白兩國과 軍事協議를遂하기로되엿다 小協商國과 協約諸國政府의 意向을 質하고

一、獨逸의 再軍備에對한 措置

一、따라 不可侵條約實現에 對한對策

等을 協議할것으로 보힌다

英獨伯林會商

벡條約五編代身에 安全保障體系를確立

獨逸聯盟復歸問題도協議

『싸』氏廿四日伯林着

【倫敦十八日發聯合】獨逸政府의 承諾回答에接한結果 外相싸이먼氏는 이든國璽尙書와함께二十四日伯林에赴하야 히틀러總統과重要會商을遂하기로되엇다 兩代表는二十四日夕刻 크로이돈飛行場에서特別飛行機로搭乘하고 翌朝伯林飛行場에到着하야 總統官邸에 히틀러總統을 中心으로 所謂歐洲의全般的處理案을檢討할터로 右協定은倫敦宣言에不外한다 即獨逸政府는排除的宣言에依하야 벨사이유條約第五編의軍事條項廢止徵兵制度의 實施를 聲明하고잇슴으로 英國으로서는倫敦宣言의 承認을求하야 벨사이유條約第五編에代位할 安全保障體系의確立及獨逸의聯盟復歸를 中心議題로 協議할것으로보인다

重要使命마치고 土肥原少將上發歸着

【上海十八日發聯合】南中視察中이던 土肥原少將은 十八日正午大連의長沙丸으로 滿洲로부터來滬하엿는데 同少將은 如左히말하엿다

今回의西南旅行에서는 廣西、廣東政府의 軍政兩方面의 要人과會見하고 意見을交換하엿다 나는 滿洲國承認及 日中提携의根本精神에對하야 所信을 披瀝하게主張해두엇다 日中問題에對한 西南側의一般情勢는 表面上큰變化는업스나 實際的關係로는 非常히良好한것을 認定할수잇섯다 廣州에寄하야 陳濟棠、蕭佛成氏等과會見하엿는데 同地의一般情勢도 排日取締令으로 漸次排日感情의平常化를 示하고잇는模樣이다

日本人排斥法案 外務省深甚注意

아리조나問題重大化

【東京電話聯合】아리조나州議會를通過한 日法案은아리조나州에서 勞働할餘地가업게된境遇에는 歸化權업는 外國人 即日本人은 農耕에關한 收穫工作이禁止되여 日本人家族四百은 日傭勞働者로 勞働하는 以外에 잇슴으로日本人의 生活은 根底부터 變除하엿는바 日米外交關係의 現狀에鑑하야 極히遺憾스러운 事態를 惹起하게될터임으로 日本外務省에서는 從來에는華盛頓政府와 아리조나州政府當局의 措置를信賴하고法案阻止에萬全의策을 進行하여왓스나그러나 十九日上院은右第三讀會를開하고 그最後的運命을 決하기로되엿는데 아리조나排日土地法이成立될時에는

一、日本人의入國을許可하면서入國日本人의生活을脅威하는此種法案의 正文化는國際通例에背馳할뿐아니라 事實上日本人移民에對하야行하는 此種差別的法律案은 現行日米通商條約精神에違反하는것임을 指摘하고 直時齋藤駐米大使로부터 華盛頓中央政府에 嚴重抗議를提出케하고 米國中央地方政府에善處를 要求할터인데 二十日아리조나州議會下院 第三讀會의經過如何를 當局은特히注目하고잇다

國府聲明에對해 調印後反駁聲明

【東京十八日發聯合】北鐵讓渡協定成立에對하야 南京政府外交部는 十六日關係各國政府에게 長文의聲明을發表하엿다 聲明의大略은如左하다

一、蘇聯邦政府의今回의行動은中國政府의承認이업시 中東鐵路의處分을履行한것으로 中國政府로서는 絶對로이것을違法또는無效로思惟한다 따라서 中國은契約上의權利義務와 主權은 依然히 存續하는것이므로 中國政府는그權利를留保하는者이다

이에對하야 日本外務當局은日中關係好轉을傳하고잇는現在 中國이새삼스러 右態度에出한것은極히 遺憾이라고 來二十三日北鐵讓渡協定正式調印式終了를기다려 適當한機會에公文書로써南京政府의所信을反駁하고 北鐵讓渡交涉開始에當하야 蘇滿兩國間에斡旋의勞를 取한日本政府의主義와協定成立後取할日本政府의責任問題에對하야 重要報告를할것이라고미더진다

陸軍辭令(朝鮮關係)

陸軍技師 楠岡得治

命第二十師團經理部附

第二十師團經理部附

陸軍技師 靑木茂

補朝鮮軍經理部附

陸軍技師

命朝鮮經理部附 中村孝之

定例局長會議

定例局長會議는 十九日午前十時三十分開會 宇垣總督으로부터 春窮期를當하야 昨年冷害를受한西北朝鮮地方及 水害를蒙한南朝鮮地方의 窮民救濟는關係各道의손으로 進行하고잇는줄 아는데 總督府로서도조곰도遺算이업도록 準備를進行하고또十年度豫算도 成立하엿스므로 遷延되는일이업도록 注意하라 目下滯京中인 中國經濟特使에게도可及的便宜를圖하야 必要한資料等은意量用하야 提供하주라고述하고 牛島內務、增永法務兩局長의 東上報告等이잇슨後 同十一時三十分散會하엿다

政敎刷新建議案 廿日本會議上程

强硬派、美濃部學說反對表明

貴院大論戰展開豫想

【電通東京電話】貴族院에잇서서政敎刷新에關한 建議案은十九日事務局에 提案되엿슴으로 直時日程에上程할 手續을取하야마침내二十日本會議에上程키로되엿다 그러나 提案理由說明者에對하야 火曜會의細川護立侯에內交涉中이든바支障으로因하야同會의西鄕從德侯의蹶起를 促하기로決定하엿다 그리고 贊成演說者는研究會의二荒芳德伯、公正會의井田磐楠男 無所屬으로부터 土方寧氏가各各이러나기로되엿다 美濃部學說排擊을 意味하는本建議案에對하야如何한 觀點에서贊成할는지자못興味를끌고잇다 또井田磐楠男은 强硬派를 代表하고痛烈히美濃部學說反對를表明할터인데當日貴族院은 오래간만에活氣를呈하게될것이다

米穀委員會經過

【東京電話聯合】米穀自治管理法案外二件委員會는 午後一時五十分再開議事進行에對하야 協議한結果 質問을制限하고可及的適告者의發言을다할수잇도록하자고協議한後

難波淸人氏(政友) 朝鮮側의增產計畫은中止하더라도技術的으로進步하엿스므로 今後더욱增産되리라고생각하는데 如何

兒玉拓相 增産은되겟지만 急激히日本內地米를 壓迫할것이라고 생각되지는안는다

石川又八氏(政友) 十二日에는過剩米가잇스면서 米價가最低値以上一割에잇다 따라서管理의必要는업스나三、四月頃에至하야價가最低値에가까히온境遇에는 如何한措處를하겟는가

荷見米穀局長 第四十條에依한第二次統制로生產者、商人、雙方에게管理시킬方針이다

谷原公氏(民政) 本案은所有權의 制限이되는點에對하야補償하지안는 境遇가 잇는데 憲法上相關이업는냐

山崎農相 生産者의 利益을保護하는것을目的으로 하는것이므로 別로支障이업슬것이다

田村實氏(政友) 臺灣米를 貯藏한結果變質其他 失敗가잇스면、어떠케할터인가

兒玉拓相 政府로서는 責任을回避하려는 것이아니다

眞鍋勝氏(政友) 本案通過反對運動에對한 官憲의鎭壓迫害는 그後더욱露骨인데內相은 그責任을어떠케할터인가

後藤內相 지금까지의報告로서는 不當한迫害는업섯는데다시調査하야萬若잇스면注意하겟다

眞鍋氏 現在의高米價政策은 都市消費者뿐만아니라 農村方面도壓迫하고잇다

述한後午後六時二十分散會하엿다

衆院米自管委員會 今明間決定

政友委員修正意見內容

【電通東京電話】衆議院의米穀自治管理委員會는 十九日로서大體質問을終了할豫定이며 今明日中에各派의意見決定을보기로되엿스는데 問題의中心은販賣組合의强化抑制에잇는바 如何히此를修正할는지가자못興味를끌고잇다 그리고이點에關하여는政友會委員間에米穀自治管理法案中 左의三項目에對하야 有力한修正意見이唱道되고잇다 그러나이修正意見은自治管理法案의運用上重大한關係를가진것으로 政府側으로서容易히應諾하기어려우리라고 觀測된다 果然政友會全般의意見으로具體化될는지 疑問視되여잇다

一、第四條의『米穀統制組合은左의事業을行함을不得한』이라는點을修正하야 其取扱을過剩米에限定케할것

二、第二十八條의組合은代行할수잇는 販賣令이統制組合 規定中에『特別한事情이잇는境遇에限하야』라는制限條項을設하고그特別事情은 勅令에미루고大體그內容을 管理米가非常히적은町村又는販賣組合이 그地區內의米作者의 太半으로써組織되는組合으로할것

三、第六十條의 販賣組合의取扱米穀의 平均賣規定을削除又는制限할것

그리고 以上三點以外에 第四十八條의管理米의解除規定을 米穀이最高最低價格의 中間値에達할境遇로한다는意見도잇스나 此는政府側의原則이 最低價格의一割以上騰貴될境遇에 解除할意向이며 中間値로할時에는 重大한支障을招來함으로 그修正意見은重大視되여잇다

夕刊後市況 十九日

◆大阪短期 氣配◆

大新 九三六〇 (不變)

鐘新 一三〇〇〇 (二〇低)

日產 一〇三四〇 (二〇高)

東新 一四九三〇 (二〇低)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五五三〇〇 先限 五七八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八九〇 先限 六七四〇

日鮮向雜貨卸問屋 文具 鏡各種 金物 化粧品 小間物各種 絲類各種 電氣ランプ 玩具各種 鮮人向雜貨 カタログ進呈 大阪市港區八雲町三ノ一 丸一商店

カラー ワイシャツ 店名捺印ニ限リ カタログ呈 春物品揃 HANE KOMORI TRADE MARK WADA SHIRT MFG & CO 大阪市東區納屋町九番地 和田シャツ製造所 電話東四九一七番 振替大阪八〇二四五番 取引銀行 住友銀行上町支店 三和銀行松屋町支店

印ダクラ ヤスリ 鐵工、造船、木工、鉛工、蹄鐵特種 陸海軍、鐵道省御指定品 大阪市西淀川區浦江南一ノ九 電話土佐堀三四五二番 ナニワ製作所

思の儘にされる! 輕便 太陽印刷器 卸 小賣 特約店募集 製造元 大阪日本橋四丁目 太陽商會 (カタログ呈) 電話戎一五三三

コドモ 三輪車 折疊車 自動車 カタログ進呈 製造直賣 大阪西區南堀江下通四 芦田商店

新春 景品付 空氣銃 特賣 高級タナアイ 壹拾參圓以上 同 小型八 八圓以上 少年用デージー式 貳圓以上 (カタログ二錢呈) 大阪市南區高津四番町一番地 合名會社 常盤號銃砲店 電話戎大阪五〇二二三

食料玩具問屋 (商報進呈)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筑紫屋商店 振替大阪六七二五九番

針金直線自動切斷機 斯界に定評ある (型錄進呈) (在庫豊富) 專門製作販賣各種織線トナギ切斷 大阪市天王寺區東平野町一丁目 轟龜太郎商店 電話南五六二九番

大阪優良商工 乘馬服 作業服 タンコ 製造卸 (カタログ進呈) 其他ズボン類一式 大阪市東區米野町電停前 合資會社 西村直商店

市價 貳拾圓 四拾圓 以上의 高級蓄音器를 進呈하는 레코-드의大特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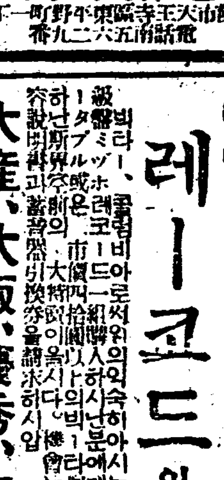
大產、大阪、優秀、廉價 國產레코-드의最高峰을걷는 ミヅホ레코-드

HZM式電氣吹込 十吋盤 定價一枚金一圓五十錢 特價金一圓廿五錢

拾貳枚壹組特價 金拾五圓 (A部) 貳拾四枚壹組特價 金參拾圓 (B部)

堂堂斯界를壓頭하난 進呈의 蓄音器

以上A部(十二枚一組拾五圓)購入하시난분에게 市價貳拾圓以上의 ミヅホポータブル 一台進呈



絶對責任付지난 ミヅホポータブル 最新式スパイラルモーター、自動ストップ附。ベニヤ材 特製レザー張、十二吋盤演奏可能 ミンユラルミン製鳴音器 高五寸幅一尺奧行一尺三寸三分

以上B部(廿四枚一組參拾圓)購入하시난분에게 市價四拾圓以上의빅타-型 ミヅホ蓄音器 一台進呈

絶對責任付지난 ミヅホ蓄音器 ルミンサウンドボックス。高一尺三寸五分、幅一尺三寸五分奧行一尺三寸

近來東京方面에近似한거짓品이잇스옵니다 特히注意하시음을願함

申込 爲先郵券貳拾錢(貳錢切手拾枚)을同封住所氏名을明記하시고申込하야주십시오。內容說明書、新譜目錄、蓄音器引換券等을急送하겟사오며同時에現代레코-드歌謠全集(高雅美本)을보내겟사외다。期間制限이잇사오니一刻猶豫은一生涯의損、後日이라마시고即刻申込하시음을

ミヅホ레코-드本月新譜 流行歌、獨唱、民謠、俚謠、ダンス曲、合奏、唱歌、童謠、萬歲、浪花節、端唄、小唄、映畵說明、義太夫、琵琶等四十二種

大阪市天王寺區阿部野橋交叉點東 ミツホレコード ミヅホ蓄音器 製造販賣元 瑞穗工業營業所 電話天王寺三五六七 振替大阪五二三八五番

本報創刊 十五周年 紀念特輯

金庫穿扉四十夜 一攫七十八萬圓!

事件發生五十二時間에無難就縛한 平壤朝銀支店의大盜

大事件의回顧十五年 (十四)

◇……춘추전국(春秋戰國)때에 진(秦)나라에 잡혀갓든맹상군(孟嘗君)이 한번바첫든호백구(狐白裘)를 다시훔처내인것은 일이한낫도적질에 그치는것이나 이때것이천여년을두고 여러사람의 이야기거리가 되는것이거니와 도적질중에 『쎈세이슌』을 이르킨것은 변전평양(平壤)에서 조선은행 금고를깨치고 칠십팔만원의 현금을한녹질취하여간 사건이 그것이다

◇……지난소화칠년일월십륙일 오후네시로부터 십칠일밤 열두시의사이에 평양리문리(里門里)조선은행지점의 큰금고가 깨여지고 그 속에 너헛든 조선은행권 백원짜리 백매식묵근것 예순한뭉치와 십원짜리 백매식 묵근것열다섯묵금과일본은행권 백원짜리 십원짜리등섞긴것을 합하야 도합칠십팔만원이 연고와 가치살아저버렷다 마츰이때는 십륙일이 토요일이엇고 십칠일이 일요일이다 은행은쉬엿고다만 숙직과 일직의행원이교대되고는 아모일이업섯고 십칠일정오경에이르러 여롱소제를 마친소야(小野)소사가 우편국에 한삼십분 갓다온님밧게업섯다 이와가치일허진돈은 비록 가벼운지폐라하나 원악거액이므로 지게에걸머진데도 장정이라야 겨우두짐에질만큼 묵업고부피가 큰데어느사이에그것을 꺼내며어느사이 그것을처분하얏는가함이 세상의 큰흥미를끄으럿고 또는 조선은행은 조선에서의 중앙은행인 만큼 평양지점도 평양에서의 중앙은행이라 다른은행의 귀중품을 마타보관하는일도잇는만큼 그금고의성능(性能)이충분치못한것을 설비치아니하얏슬터인데 그튼튼한금고를 엇더케 깨트렷스며 깨트리는데도소리조차업시 하얏는가하는것이 더욱사람을 궁금케식여노앗섯다

◇……이사건은 발생과 동시에 다만 세간의흥미를 도드는것이와에 다시한가지큰파문을 던젓스니 그것은 절대안전을밋고 네려오든금고에대하야 그안전감을 근본적으로번복식인것이다 이리하야 각금융업자들은 금고에대한 불안이생[illegible] 소동을이르키엿다 그러나경찰은미래에장차생길도난보다도당장생긴 사건의 범인부터 잡고자신문과사회 일부를금지하고 이에여명계판이대활동을한결과 그달이십일 새벽네시사십분에 평양부진정(賑町)사번지에서 유곽영업을하는송내가(松乃家)를 엄습하야 그주인좌내전감길(佐奈田勝吉)=當時三六歲=을 집룡신리와가려 검거하는일방 공범자여섯명도 검거하야사건발생후 오십이시간만에 범인을 주머니붐건 차저내드시 잡아내엿다 이처럼『쎈세이슌』한대사건이 이가티 쉽웁게 해결된그것은당시 경찰이 생각할때 도난당한돈은금고속에 사백여만원이 잇섯는데다만칠십팔만원이업서지고 남어지는그대로 잇는것을보아 범인들은 돈의중량이묵업고부피가만허서더 가저가지못한것임을 생각하얏다 그러면 그들이 가저간돈은어데로 처치하얏슬가를 생각하얏다 범인에게는 그때한조 한밥이라도빨리 현장에서 피신하려는것이 급한욕심이라 그러면 물론그들은돈을질고가지도 안헛슬것이고 손구루마에 실어가지도아헛슬것이다 왜그러냐하면 대중적(公衆的)으로는스퍼!드』가 흔한자동차라는것이잇스니까……

◇……이러한 추리(推理)를 한 경찰은 자동차부를다니며 조사하얏다 그결과 조선은행근처에서그밤에 자동차를타고『트렁크』를 넌저가지고간 사람들이잇슴을 확정하고나서 범위를 좁혀가며수사한결과 드듸여들어낫다 경찰은그들의자백에 의하야 양각도(羊角島)에 가서 자하로약뎌자가량을파고 무더두엇든 장물[illegible]를 꺼내일때에 사용한 여러가지도구를 압수 하는동시 인헌 현금도 압수하얏다가 조선은행 으로 인도하얏다 이제간단히 그들의범행경로를소개하면 주범 좌내전은 이범행을 상당전부터 계획하고미리여러가지 도구를 작만하야두엇다가그범행당시로부터사십일전에 비상문(非常門)으로강쇠통을너허 물조긔를 썰기시작하야 사십일만에목혀울달한것인데 이때까지 은행에서물끼까딘줄두수한것이비상비인데 이비상바라는것은 비상한때가아니면 열지안는 것이기때문에누가 가보지안헛든것도 한원인이나그보다도 범인은 새벽에나올때마다 틈자국나꼿에 금고빗과똑가튼『펭키』칠을하고나와기때문에 시상히보아서는그자국이아니보인까닭이엇다한다

◇사진은 범인 부부

今年부터各普校에 劃一敎育制改善

地方을따라서水産、鑛業도敎授 實際敎育을目標로

학무국에서는 금년부터는 보통학교의 실습과 실업과목의확충을도모하게되야 재래의상업과 농업의 량과목에 한하엿든 실업과목을상업공업 수산(水産)광업(鑛業)농업의 오개과목을각기지방의 사정에따라 교수하게하며따라서 실습(實習)에잇서서도 재래와가튼 수공과 농업의두가지에 한하지안코 전기오개의 실업과목과가튼 간단한 실습을하게할터이라한다 즉재래에는 보편적으로 지방의특수사정을 고려하지안코 상업과농업의 두과목을각기 교수한결과수산、광업、공업등특수한실업에대한 지식이 너무빈약함으로 금년부터는전과와가치 실업과목과 실습종목의 확충을도모하야 초등졸업자의 실업적지식의 향양을 증 하게하야 초등학교교육의 실제교육화를 단행하야 획일적(劃一的)교육 제도의 근본적수정을 점진적으로실시할 방침이라 한다

校門을나서는 일꾼들

普專에九十一 優等生七名

보성전문학교(普專)에서는 제이십팔회졸업식을십구일오후두시부터부외 종암리(鍾岩里)그학교 새강당에서 성대히 거행하엿는데졸업생은 법과(法科)가 쉰두명상과(商科)가 설흔아홉명으로 모다 아흔한명이고 그중 우등졸업생은 일곱명으로 법과에네사람 상과에 세사람이다

▲法科 五十二人

李康鎬 △趙競衍 權寧 鄭銘基 安台慶 孫彼得 金日演 具玩會 鄭之相 具麟書 柳春馨 李鋼烈 金榮國 成洛鎭 △郭炳殷 郭紳熙 韓麟患 金玉成 李起德 △金碩煥 朴濟龍 崔永懿 金在珍 李鋼雄 趙天九 閔泳震 李鎬容 丁奇鉉 羅龍雲 崔貞鉉 曺圭玉 閔載禎 吳南根 宋龍植 李相浩 朱贊云 金正河 徐鋼奉 李鼎洛 鄭宗和 周斗生 朴相照 李齊鉉 △李孝權 李致淳 金化俊 黃正桓 崔岸植 孫炳鎭 朴榮根 金道源 金弘順

▲商科 三十九人

趙漢弘 李相俊 張永順 朴中鳳 河要翰 金泰駿 朴迈信 兪元根 尹錫 △金英泰 咸炳文 △申鉉鎬 呂運甲 朴東華 金顯玉 崔鳳鎭 崔南鎭 鄭文鳳 尹錫龍 金禹鉉 馬相洙 金貴善 姜興奇 孫錫斗 鄭炳來 金鎭賢 裵聖麟 丁宇鎭 李基烈 △柳俊燮 韓明洙 韓文敎 申應均 洪日泰 金炳昌 金容得 丁宜鎭 尹明洙 朱鎌

(△은優等生)

사진은(上)재동보통학교표창식(우)는김유평씨(좌)는허달씨(下)는보성전문학교우등졸업생일동

齋洞普校後援 功勞三氏表彰

시내재동공립보통(齋洞公普)학교후원회를 위하야십오년동안을 하로가티계속 근무하여온리사장 윤치소(尹致昭)리사 허달(許達)김유평(金裕平)삼씨의 표창식은십구일오후 두시에그학교 부형회주최로 그학교대강당에서 학부형과생도 일천팔백명의참석으로 성대히개최하고 기념품을 증정하엿는데당일 윤치소씨는 병중이므로대리로윤보선(尹譜善)씨가 대리로출석하엿섯다 량재창(梁在昶)씨의축사와 경성부윤(중촌씨대리)의 축사가 잇슨뒤성황으로 식을마치엇다

賃金에不滿갖고 『펭키』工一部罷業 全體에波及될듯

부내원정(元町)일정목 일백이십구번지의 경성펭키직공 조합원일백사십명은 지난 일월이십사일경경성 도식조합(京城塗飾組合)장 초야범(草野汎)씨에게 대하야일반 물가가 등귀한이때에 현재의 로임으로서는 도저히 생활을 해나갈수가 업스니 일할은의임금을 인상하야달라고 요구한일이 잇섯는데 상금도아모성의가 업슴으로서 직공중의급진자명중에서 분개하야 십구일부터고시정(古市町)일백사십팔번지 전긱중작(田崎重作)공장에서 십명한강통(漢江通)십오번지 망성송태랑(網星宋太郞)의 공장에 삼십명중 이십오명이동맹파업을단행하얏는데압흐로전부에파급될념려가잇서방금각가지로교섭중이라한다

버릇사나운少年 主人돈훔처놀아

한참북바처타오르는 허영심을 못이겨범죄한소년—부내 한강통(漢江通)십일번지의팔십팔호 생선장수강구(江口)의집에 점원으로잇는박영철(朴榮哲)(假名)이라는열여섯살먹은소년은 겨우 한달에이원의 보수밧게밧지못하는터에 신분에 넘치는금전랑비를 한다는소문을들은 룡산경찰서 사법계에서는 항상그의행동을 감시하여오든바 십날일오후에그를데려다가자세히물어본결과그는작년칠월경부터주인의눈을속이여작년십이월중순경에그집의장안에너허두든지갑속에서 십원짜리를 끄내는것을비롯하야 지난삭월조순까지 열다섯회나 주인의돈칠십여원을훔처서 돈잇는집 아해들이 도주정을하는시사진과 십륙『미리』영사긔 안경、팔뚝시계 류행목도리 구두등속을 사서 전부소비한것이라는데 그는처음에는 전연사실을 부인하엿스나 그의본가인 리태원리(梨泰院里)××번지에서 압수해온전긔물품들을보이자 그는사실전부를 자백하며 자긔의허영심을 뉘우치는눈물을 흘렷다한다

羊頭狗肉의惡德醫 徹底히團束豫定

開會된京畿道會서問題되여 當局絶滅을言明

세상에의술(醫術)을인술(仁術)이라하야 의사는 광구질환(匡救疾患)하는천직을 가진것으로일반사회에서그들을 존경하고그반면에는 그들에게도 의적긔대가가장큰바이나 왕왕히 의술을가진자그천직을 일종의 치부책으로만녁이고악착한 모리배를보다 오히려더한비인도적 착취를 감행하는일이만허 세간의 추망과상부되지안홈으로이를통탄하는바어니와방금개회중인 경긔도회(京畿道會)에서도이문제로 말성이되엿는데 그내용을드르면 근래각군에 배치되여잇는공의(公醫)는주민들의보건과진료에주안을 두기보다 오히려돈버리에만 몰두하야 엇던때에는빈민의집에 치료를갓다가 치료비를뒤에가저가겟다 하면 종곡(種穀)이라도 빼아서오고 도치료바드려가는사람에게 아모리 급병이라도돈안가저온사람에게는 완상히 거절하는례가 만타는것이다 이에도당국에서는 새로히방침을세워 부정의사에게철퇴를가하는동시에특히즉접감독배하에잇는공의는더욱단속하야 만일이런부도덕한 행동이 잇는자이면 그진상을 조사한후단연히 적당한 처분을행할터이라고 답변하엿다한다 이로서 금후 이종류의악덕의사의발호가근절될는지일반은자못긔대하는바이라한다

暗夜에지은罪로 法廷에서被告惹鬧

本婦毒殺하려든醜夫醜婦가 罪過轉嫁로毆打怒呼

십구일오전열한시오십분경서복심법원형사 법정에서는 지전(池田)재판장이며서죄의 심판을 밧게된본부살해미수죄를 지은 두젊은남녀가잇섯는데 남자는 일심판결이중하다는것보다 범죄한사실이 전연업스므로 징역이억울하다는 하소연을하고나서는겨려나라 잇든백님의 정부이엿든녀자에게직이녀아베가거줏말을하엿기때문에내가이제억울한죄를 밧게되는구나 하고녀자에게주먹으로때리고발길로차니녀자역시그냥잇지안코사실이아니면 아니라고말만햇스면 그만이지 때리기는웨때리느냐 하고발악하여 법정안에서 근자에볼수업는풍파를 이르켯다 그리하야사오치나 서로밀치고닥치고하는 한바탕란투극을 연출하엿다 마츰내간수의제지로이랄루는즉시그치게되엿는데 남자는그냥 분하다고 녀자에게 욕설을하고 녀자는남자에게 마즌것이 분하다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각기 법정바그로끄을리여나가는데 이때마츰그법정에 방청하러와잇든 경성사범학교 남녀생도구십여명은 모처럼재판견학을 하러왓든차에 별안간에일어난 이광경을보고 녀자생도들은 녀성죄수의 통곡성에감동되여 모다머리를숙이며 눈물을먹음고 잇섯고 남자생도들은입을벌리고 기괴한 구경을한듯이 제각금흐터저나가는우슴을 금치못하엿다 이란투극을 연출한 주인공이된본부명천군아간면신계동(明川郡阿間面新溪洞)에사는김주봉(金周鳳)(二七)이라는남자와김옥희(金玉姬)(二一)라는두젊은남녀로 그들의죄상은 이러하다 김옥희는 재작년십일월에 그의남편인 윤원병(尹元炳)(二六)과 결혼하야가지고 살아왓는데 그남편이무식하고 좀병신스러웟슴으로 늘 불만하게 생각하고잇든중에 가튼동리에사는 피고김주봉과 서로눈이맞어 정을 맺게되여 관계를 해오게되엿는데 그달십오일밤에는 서로공모하고 본부윤원병을 죽여버리고 어데로 처치해버리고 두리 어데로 도망하야 자미잇게 가티살자는 약속을하고 사흘밤동안이나 본부를 죽일 긔회를 엿보다가 드듸여 그달십구일밤중에 간부김주봉은 시체를싸서버릴 준비로 마대(麻袋)와마승(麻繩)을 준비하여가지고가서 김옥희의 본부 윤원병이 기피잡이드른 틈을 타서 주먹가튼 돌맹이를 들고 드러가서 윤원병의 머리를 따렷든바 윤원병은 놀래여 소리를질르고 잠을깨게되자 김주봉은 그만죽일목적을 달하지 못하엿슴을 각오하고 별안간에 가짜강도로 변하야돈을 내노라고 고함을 한번질르고 바그로도망해버렷다

이때에 녀자김옥희는 소리를질르면서 놀래일어나는 남편윤원병의머리까락을 한쪽손으로 옴켜쥐고한쪽손으로는 남편의 눈과코등을란타하엿스나 남편은 녀편네에게머리끼락을 붓잡힌채로 그냥바으로 뛰여나가면서 사람살리라고 고함을 질러서 이웃사람들이깨여일어낫기때문에 이개월 치료할중상을 입엇슬뿐이라한다

그래서 이두간부부는 청진(淸津)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남자는 징역오년、녀자는 징역사년의 판결을 밧고불복공소하엿든것인데 이날 경성복심법원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일심판결이결코 무겁지안호니 그냥복죄하라고 권고하엿스나 피고량명은 사정이 억울하니 다시재판을 해달라고하엿다 그리되자 립회하엿든검사도 일심판결은 너무가볍웁다하야 부대공소(附帶控訴)를 하엿다

이러케되자 재판장은 부대공소까지 잇는터인즉 결국일심판결대로복죄하는것이유리하다고한번더 주의를하엿든바 피고들은 그러면 그냥 복죄하겟노라하고서는 간부는정부에게대하야 자기는 절대로 서로 관계한일도업고 본부를죽이려한일이 전연업는데 녀자가거즛진술을 하게된것이라고 눈물을흘리면서 재판장에게 재심하소연을 하고 마츰내녀자에게 덤벼들게된것이엇다

朝鮮硏武館 館員을增募

市內壽松洞에잇는 朝鮮硏武館에서는左記規定에依하야大大的으로館員을增募할터이라는데今春부터는特히少年部를擴張할터이라한다

◇入門規定 ▲入門金 貳圓 ▲每月道場費 一般部=貳圓 少年部=八十錢 女子部는新道獎勵의意味에서無料로함

重量拳鬪選手 갈네라KO勝

【桑港十五日發聯合】伊太利의拳鬪選手『뿌리모·갈네라』(二六八封度)는十五日밤桑港에서 米國의强豪『레이·임페리테라』(二五八·五封度)와十五回戰을 行한바第九라운드에 『갈네라』KO로快勝하엿다

柳河縣滿人街서 一千餘戶를燒失

【奉天十九日發聯合】봉천성공서(奉天省公署)입전에 의하면 십팔일오전아홉시경에 류하현 남문밧(柳河縣南門外)만주국인사는거리에서불이나서 마츰강한 바람에불리여약일천여호를 다태우고 동일오후열시에 이르러 겨우진화하얏는데손해는 방금조사중이라한다

鏡城에突現한 五人組强盜團 金品을强奪逃走

십구일오전한시반경함북경성군주남면룡암동(鏡城郡朱南面龍岩洞)오백오십칠번지송증명(宋增明)의 집에다섯명 일단의강도가침입하야 세명은 문밧게서망을보고 두명은총긔를들고 자는주인을깨워 결박하야 놋코금품을강탈도주하얏는데이급보를접한소관경성 경찰서에서는 비상소집을하야방금 범인을엄탐중이나 아즉종적이 묘연하다한다

第八回全朝鮮卓球選手權大會

◇時日 四月三日(午前十一時競技開始) ◇場所 鐘路青年會館

◇參加規定=住所、氏名、所屬을明記하야 參加金拾錢과함께 四月二日까지YMCA體育部로申請할것

主催 中央基督敎青年會

後援 朝鮮日報社運動部

新入生合格者發表

培材高普校

李鍾雨 金鍾邦 金東柱 韓錫集 宋貫鎬 韓基濬 具益林 金鍵浩 元容瑞 吳弼奎 朴昌赫 張承煥 孟英在 方在明 吳順錫 崔茂錫 鄭涼杓 柳寅錫 金持賢 全允杓 金鋼玉 朴順基 劉極澄 許文德 朴仁根 李弼鉉 李承俊 郭永鑒 鄭振玉 李相文 金潤東 林春相 田洛鎭 金鍾烈 李信載 金昌洙 朴貞玫 朴 錫 金生河 金基贊 李順玉 鄭寅成 李昌厚 許 種 金敎東 柳守烈 白良善 李鍾珉 李鍾珠 韓俊善 金鳴鐸 金潤柱 金鼎洙 金基宇 鄭禧橋 金熙培 金國鎭 李唐雨 韓條奎 方金錫 魯元益 房吉益 李元極 禹熙東 吳垸根 吳麟根 文世安 朴容默 吳在一 金瀅厚 盧炳鶴 朱重敏 金享道 趙重衍 鄭寬五 李禮植 崔塔潤 金鍾源 李元鎔 崔熙眞 李成植 李炳森 鄭義鉉 梁在顯 李泰炯 盧長憲 盧炳瑢 金詠煥 吳有根 金完用 崔榮昌 金鍾喆 閔完植 姜宸卿 朴永煥 禹承孫 李完浩 金以詔 鄭正賢 沈碩植 張斗極 李一龍 金顯昌 田秉駿 孫興基 趙南株 吳昌根 金英質 崔東輝 金永基 徐寅喆 宋一圭 金永台 方 熙 李丙權 金元洙 李海天 元忠淵 全東九 姜勸善 柳直烈 鄭學南 禹厚植 黃禹圭 崔鳳瑞 李相源 權憲尙 安衛基 高齊駿 黃圭復 金寬煥 韓明洙 金俊興 李 壁 李商宰 崔寬德 張彩英 朴性裕 鄭允咸 金光石 禹錫宇 張德煥 崔任鍾 閔貞基 朴楨永 李淳興 張龍海 田浴順 金仁郁 申台熙 金炳增 金錫準 金海榮 申世浩 吳道三 宋永燮 秋鍾錫 尹河鎭 張圳淳 朴春塔 李昊年 徐丙旭 白入鎔 洪錫春 全龍德 金慶三 孫容永 朴弘錫 李圭興 金斗秀 朴應基

以上一七一名

誣告한曺寅玉 懲役八月言渡

시골서 서울로이사온 부자에게돈을 후려먹을양으로 행랑사리하는사람의안해를 강간하엿다고 죵로경찰서에 거줏고소를 제출케한사실로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고(誣告)죄로 징역팔개월의판결을받고불복공소하엿든 살인피고 리수락(李洙洛)사건의 중요한 증인(리수락에게불리한)의 한사람인조인옥(曺寅玉)은 십구일오후 경성복심법원에서 지전(池田)재판장으로부터 역시징역팔개월의 판결을바닷다

暴風警報

三月十九日午後二時半 仁川觀測所發表=바람이 强할것이다 高氣壓에 따른季節風으로 北乃至南風이 强하다 朝鮮全部의沿岸을 警戒할지어다

기침에잘듯고먹기좋은약

百日咳……홍역
氣管支加答兒
咽喉炎……扁桃腺炎
밧튼기침……천식
기침……폐염……담
호흡기병으로 인한담기침에

지밋신은 담·기침에잘들을뿐만아니라 맛이조흠으로 약을실허하는 어린애라도잘먹게됨으로 더욱 유효하며 조곰도극약성분이 석겨잇지안음으로아무런 부작용의염려가업스니 아모리몸약한어린애의게도 괜대안심하시고 먹일수잇습니다

조선에 만흔환자를가진 밧튼기침 말는기침에는 무슨약보다도 조선사람의체질에맛는만큼 제일잘듯는다고 칭찬을밧고 잇사오니 부작용과 습관성의염려가 전연업시 담을곳삭게하고 기침을갈안치며 밤에잠을 잘 주무시게만듬니다

어느가정에도한병식준비하시사 기침을하거든……한숙갈 잠재일때에……한숙갈식…… 사용하시면 잠을잘자게되고 자는동안에 병증세의악화를방지하고 건쾌를빨으게함니다

チミツシン (지 밋 신)

三○○瓦…一圓八十錢 一五○瓦…一圓 五○瓦…四十錢

全道藥房에서 販賣합니다

發賣元 田邊元三郞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三ノ七

YT-K-8

激增에驚異할□□ 咸南道小作爭議
昨年中은겨우三件이엿는데 今年은벌서三十五件

【咸興】 금년에들자각자가격증하는소작조정신청은 갈수록 격심하야삼십오일까지 함흥법원에 제출된 조정신청건수는 벌서 삼십오건이나되엿는데 작년은 일년동계가단 삼건의식뿐엿에도 도다시무건이제출되엇다 고내용인즉 함주군주지면덕성리(咸州郡朱地面德成里)에사는 소작인 김창학(金昌鶴)김동익(金東益)등오명은지주정평군춘류면신상리(定平郡春柳面新上里)에사는 백문운(白文雲)이가 함주군주지면덕성리, 송흥리(松興里)신경리(新慶里)에잇는토지 답칠천여평의 소작권을 십이월이십일 소작권자유이동론(小作權自由移動論)을 제창하면서 무조거하고 이동한다고 그조정을 신청하엿고 도함주군 상괴천면신경리(上岐川面新慶里) 에사는송영하(宋永河)송여하(宋英河)등이명은수십년전부터 동면오로리(五老里)에 사는 지주남병초(南秉楚)게서작권은이더 소작하여 이래평화한사이에동면신경리에 잇는답오천여평인 분작하여오든바 작년십이월경 남병초가 전긔토지를 동리김모(金某)에게 매도하게되엇슬때 소작인오명은 신지주에게서 소작권을어듬가하고 중개까지하여주엇든바신지주김모도그중개의공로를보하던서금년도부터계속소작하기를승락하던바돌연금년이월에이르러전긔소작인들이 금년농사를 하려고비료를 운반까지 하엿는데불구하고 지주로부터 소작권을 이동한다는 통지를맛고 전연생계하여 나갈방도가업스니 그것을 조정하여달라는것이다

林川水組工事 山南組에落札

【扶餘】 충남부여군림천면수리조합(林川水利組合)은 지금으로 부터 오륙년전에완성하야충화면(忠化面)일부와 림천면(林川面)일원을구역으로하야 관개하든중 수년전부터 구역연장을도모하여 오든바 작년에야그예산을 세워입찰을 식힌바 지난십사일대전산남조(山南組)에 일만오천륙백사십원에락찰되엿다는데 공사는 불일착수하리라는데 연장구역은량화면(良化面)이라한다

生魚실은「추럭」 七十老人을轢傷

【仁川】 생선실은「추럭」이칠십로인을득상—인천자동차주식회사소속「추럭」(京七一〇〇號)운동운전수 정만성(鄭萬成)(二六)이가 운전하고 어류(魚類)이천오백근을실고 십삼마일의속력으로 시내를질주하다가 시외도생원 근방에서 통행로인을 늑상하엿다는대 로인은장의리(長意里)김명달(金明達)(七〇)로 때마츰 부러오는 바람에 이러나는 몬지로 눈을 뜰수업슴으로 정작(警笛)을 듯고피한다는것이 정면으로 충돌케되야 외인편(?)으로 서야인(西野人)병원에서 응급치료중이나 전치약월수일을 요하리라하야 생명이 대단위독하다한다

公立商業專修校 四月一日부터開校

【平壤】 평양중로공립상업전수학교(商業專修校)가 사월일일부터 개교케되엿다 상공도시 평양에서 정규의 상업상식의훈련을 밧지못하는 보통학교졸업정도 자격자를 모집하여실습학교와실업보수학교규정에따라 상업긔능을 교수하리라는데 남자에한하는터이며 수업년한은 이년(二年) 모집정원은 백십명으로 되엿엇다

鐵道用地犯햇다고 家屋을强制破毁
何等의猶豫期間도주지안어 多數住民唐慌罔措

【仁川】 인천부내금곡리(金谷里)룡강정(龍岡町) 류정(柳町) 일대의일부분은 경인철도신로(京仁鐵道線路)좌우로 상점혹은주택이즐비하야 잇는관계로 변소혹은점사(店舍)이 철도국긔지를다소 침범하얏다 그러나그것은 작금년에돌발한것이아니라 약십년전부터 무단사용하는관계로 대에 따라서는 공부(工夫)가독농이 비공식으로 이러케침범하면건물등을파괴하야버릴것이니 주의하라는 충고는나 자잇섯스나정식으로서는하는통지가업스므로 주민들은 무심히두고 갓섯는중돌연긔식구의 이른아침부터 사오명의공부가날러와부재단하고 수태혹은 변소등을 함부로파괴하므로주민들은상품혹은가구등의도란우려가잇스니 이상일만 참아주면철도국에교섭하야 정식임대(賃貸)를하든지 그러치못하면 턴시로라도 이전할고송정한후에 허러주마하야도 공부들은 절대불응하고 도괴하야 때마츰 부실부실 나리는비로인하야 가구등을 적시켜 상품등을모반하는 참상이라는데 이에쌍방에서는 왕방한긔자에게다음과가티말하얏다

上仁川助役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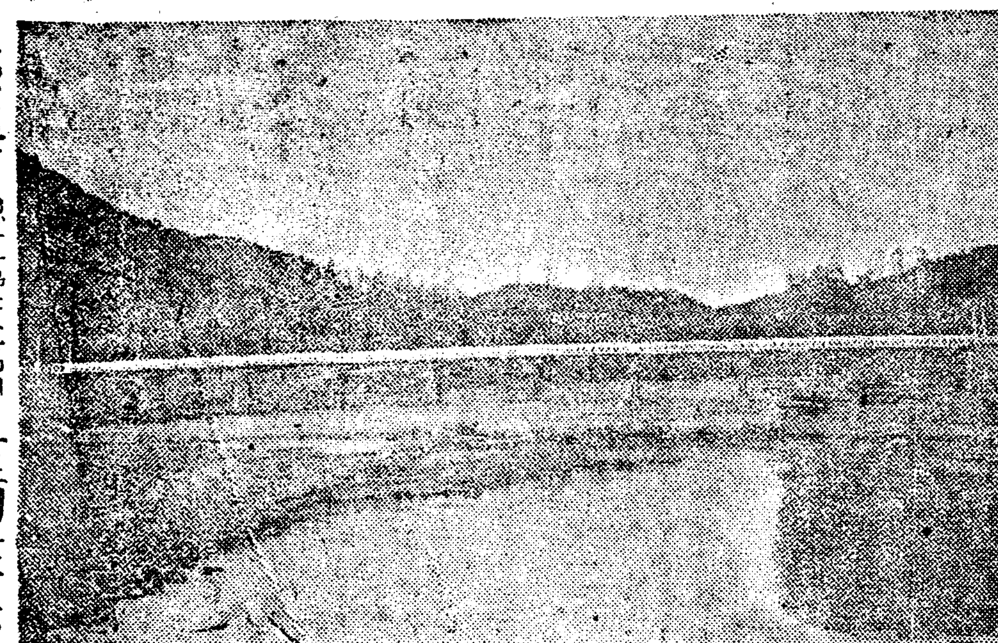
뜻기에 대단 미안합니다 철도국에서는 절대무리한행동은 하지안습니다 수년전부터 철거를명하얏스나 듯지안엇스니까 일시위협이것시요 그러나 직접우리에게는 책임이업고 보선과(保線課)에서 하는일이니까 많은 잘하야수겟습니다 운운

住民側某氏談

위협이라니요 현재비가오는대 함부로 랑을헐고잇습니다 물론정식허가를엇지못하고 한것이니까 먼저잘못은 우리에게 잇다할수잇스나 십여년이 나짓고살는처음을 별안간 이러케허는일도잇습닛까 공부들은 아모리말려도 듯지아니하니까 하는대로 수수방관 할뿐이나 우선급한대로 주민들이 의론하야 그대책을 강구하랴합니다

萬頃벌에워싸고 調停申立의激增
岐縣農場等地主의過大要求로 一部小作人은動搖中

【金堤】 춘경긔를압둔김제군하에는 소작조정신립이 격증하야벌서 십여건에 달한다는대 그원인은대부분이 지주들의 가혹한행동으로 옥구군회현면(沃溝郡澮縣面)에잇는 기현농장(岐縣農場)에서는 김제군만경(萬頃)곽모(郭某)의 논(畓)근록십정보를 작년겨울에 매수한바 소작계약이 아직도만료되지도안엇슴에 불구하고 계약을갱함과동시에지주가변경되엿슴을리유로함인지최고상활내지오활이상을인상하야 계약하기를 강요함으로일부는 계약을 체결한자도잇스나소작료가 빗짐으로 도저히응락할수업다하야오십여명의소작인중대부분은반대하며계약에불응하고 지주와대치중에잇다는대더욱허무리한것은작년구지주때에소작료납입기한을지난지 이십사일후에 작료를납입하엿슴에도 불구하고 해제통지를 발부하야 계약을안해준다하야 만경읍(萬頃邑)리용수(李龍洙)는 방금조정신립까지하엿다는대 일반소작인은 해농장의폭거에 끗까지대항하려고 일부동요하는긔세가 부허사태는 주목을끄을고잇다한다



寫眞은…總工費二萬圓으로지난十六日初渡式을擧行한槐山橋遠景

寧邊의色魔訓導 女生徒를凌辱
證書써주고和解要求

【寧邊】 신성한교단에서 남의귀여운어린자제를 마러가지고 그들의 압길을 닥거주는것을 유일의 목적으로삼는 교원으로서 자긔가 배워주는 한생의미묘에 눈이어두어 인륜과도덕을 무시하고 추악한행동을 감행하는놈상사건이 종종잇슴사회에서는 크게통탄하는바 근일도다시 평북녕변에이와가튼일이생기엿다한다

조사한바에의하면녕변군고성공립보통학교(古城公立普通學校)제오학년 담임선생 리병긔(李炳基)(三一)(假名)는 작년팔월 터롱버화에자긔가 배워주는제자 녕변군고성면립석시(寧邊郡古城面立市)김×원(金×元)(一五)의 집의 비인틈파또는 김×원의어머니가 출타하면서 김×원을보호하여달라고 맛긴긔회를 리용하야 전긔김×원에게 롱욕을하려함으로 어린×원은 잇는힘을 다하야 저항하엿스므로 목적을 달치못하고 그어엽는학교에가서는 자긔담임한생들에게김×원은 남편잇는자이니 너의 들은 저아이보고 말도 마러라 한즉 선생의 말을 밋는 여러 아이들은 그후부터김×원을 작구알인계 봄으로×원은 이사실을자긔의 어머니에게 말한즉 그어머니는 분함을참지못하야 자긔딸을학교에 보내지안키로결심하고 드디여 작년십일월삼일부터 학교에 단연보내지안키로하엿다한다

이제회제는 다시구월로 소급하여 그어느날 가을밤 역시×원의집의 비인틈을타서 후방으로 침입하야 강제로 목적의수욕을 감행함으로 그나어린아이는 그부모도 업는틈이라 하소할곳도업서서 눈물을뿌리면서 울속수삼의소유자인 리긔병(李基炳)은 각가지수단으로 달래다가 우름을긋치지안음으로 즉시일금십전 을 내여주면서 또달래스나 ×원은 내여던지면서 더욱 게 울엇다한다 그후또어떤날밤에 역시전과가튼 추행을하면서『내말을 잘드르면 학교에다시 보내주겟다』고 달래엿다 그러나×원은 부끄러운생각에 자긔부모에게 말도하지못하고 혼자억울함을 참든중 지난십사일저녁에 ×원의집에 잠든틈을타서 또수욕(獸慾)을달하려다가 이웃사람 들에게발견된바되여 비로소 그추행은청천백일하에 폭로되고 말엇다 그리하야 ×원의 어머니 박×복(朴×福)에게 좌의증서를 써주면서 사과를청하는중이라한다

契約證書

右는 昭和九年度九月分에十三歲女子金×元에게對하야 刑法第百七十七條의行爲를 犯한故로謝過金五千圓을 支拂케하되 本日四十圓을支出하고 殘金은 本月末日로 無違支拂하기로함 右金에對하야서는 本人의父李×福이와連帶責任을 負하야履行하기로함

昭和十年三月十五日 李基炳印 李×福

朴×福 殿

內譯 父親李×福의 觀賞은明日로 無 保證捺印하기로홈 餘白

朴×福氏談

『억울함니다 세상에 이런억울한일이어데잇슴니까? 그러나계약서밧고사화하는도중에잇슴니다』

校長 青木氏談

『사회에미안함을 끼처서참으로 부끄럽슴니다 평소에도 외평이 조치못하야 여러번 주의시켯슴니다 처치문제에 잇서서는당국에보고하야 하회를 볼수밧게업지요』운운

新築激增으로본 뻣고솟는大平壤
平家一五六三에三四層도多數 昨年中泪城의建築統計

【平壤】 려사의도시요공업의도시인 평양의발전상을 건축상으로보면어떠한가

평양시가는 현대도시로서도 약진대약을 계속하여 가속도적발전상을보히고잇서작년중 평양서관내인 평양부내에서의 신축가옥(新築家屋)이일천 구백신동(棟)증축(增築)가옥이삼백구십동개축(改築)가옥이이동으로 작년중새로된가옥은전부일천륙백이동의다수에 달햇고그중에서평가(平家)가일천오백륙십삼동이층(二層)구십팔동삼층(三層)이상이륙동으로대평양은 사면팔방으로 퍼질뿐이안이라 공중으로도수사오른다 환산하면 그천이백십는이천여호에 달하며 일개년간에평남도내대읍(邑)인안주읍(安州邑)이나 순천읍(順川邑)과가튼것이한아식 듬식늘어가고 잇는상태이라한다

讀者優待映畫會【宣川】

레코-드계와 영화해설계에서 일죽이명성이 놉흔 김영환(金永煥)일행이 오는이십일밤에 선천에 래착할긔회로 본보선천지국에서는 공연을후원하기로하고 이에대하야 본보독자에게는 입장료 오십전을 삼십전으로 할인하기로하엿다한다

抱主의虐待로 娼妓自殺企圖

【新興】 아모리칠보도엽시주인에게매를맛고잇는 동무를 구하려다가 도로혀 주인의분로를사서무수히구타를당하자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을두번이나기도하다가목적을 달하지못한이야기—신흥읍(新興邑)내에잇는 모료리옥○○에창기로잇는류정옥(柳貞玉)(二?)은면칠전에그동무김춘자(金春子)가소하한일로 주인녀편에게 매를맛고 잇슴을보고 말리엇드니 주인녀편네는 도리혀류정옥을 무수란타로 야 조골도인정 을 보지 아니함으로 신세를비관하고 음독자살을 두번 어나하려다가 그목적을 달치못하엿는데 이를안동모장기물은 경속하고 주인의무리한행동에 분개하는동시에 정유에게 하동정야단식소동까지이르럿다한다

二萬圓工費로 道路一部鋪裝

【平壤】 평양과진남포랑도시를련락하는도로랑(道路線)은다른곳에비하여편도뒤떠러저로면(路面)도전연평탄이업는터이므로신년도에는 특히로면의개수에전력하리라는바 평남간도로를 위시하여도내수개처도로에 이만원의 공비를투입하여 일부이나마 포장을하기로되엿다한다

仁興里牛市場터에 公設市場設置
平壤府서計畫

【平壤】 평양부에서는 대동군 농회의 경영이든 평양부내인흥리우시장(仁興里牛市場)오천칠백평을 매수하여 일용품시장 야채시장공의집곡공설욕탕등 공공시설을 하기로되여 우시장은 대동군서천면(大同郡西川面)에이전키로되엿다

地方人事

▲島崎彦次郎氏(仁川朝鮮海洋社社長) 瑞山地方視察次來瑞人事

▲宮松豐司氏(朝鮮海洋社代理部主任)同上

▲具達會氏(朝鮮海洋社鳴川取扱店主任)同上

▲金洛觀氏(朝鮮海洋社瑞山店主任)同上

百萬圓豫算으로 元山市街整理計畫
劃一下水道溝渠과道路舗裝等 認可따라實施豫定

【元山】 대공장유치(誘致)등대원산건설을 목표로 여러가지사업을 도모하고잇는 원산부에서는 이번에 그긔초공작의하나로서 종래원산의 현안이던 시가정리(市街整理)와하수개수(下水改修)안을 립안하엿다는데

총공사비는 일백이십오만원 이라는 방대한예산으로서 명년도에 총독부로부터 허가만되면 즉시실현할터이라는바 계획안의 대략을 보면 이십사만 칠천원 으로 총연장(總延長)륙천팔백구십미돌의 연구한 획일하수(劃一下水)를 구축 하고 백삼만원 으로 총연장 칠천백사십일미돌에 긍하는 도로에 아스팔트로 포장할예산이라 고한다 니해와홍진으로유명한 원산시가도 이계획안이실현되면 깨끗한 아스팔트포도가 될것이라하며 일반의긔대가 크다한다

十七歲少婦 媤母毒殺未遂

【平康】 강원도평강면복계리(福溪里)에거주하며 로동을하고잇는 손창의(孫昌義)(三)의처 류간난(柳干蘭)(一七)은 자긔의 시모되는 박씨(朴氏)를 독살하기위하야 두어번이나 계획하엿는것을 집안사람이 비밀에붓처오든바 병세가위독하여 당지 철도의원(鐵道醫院)에서 진찰한결과 독약을먹은것이판명되여 당지주재소원은 전긔류간난을 언치하야 취조중이라는데류간난은 십삼세시에 박씨집에잇며 누리로 와다가 작년십이월일에 정식성례는하엿스나 부부간에 뜻이맛지못하야 동거를피하고 서하는중 그원안으로 음력세전세후에 두번이나 밤에양재물을녀허 식모박씨에게 멕여독살을 도모하엿스나 얼마먹지안이하야 목적을 달치못한중전긔와가티발각되여방금평강서에서취조중이다라고한다

春期婦人衛生講座

光州

▲場所 光州中央禮拜堂(入場無料)

▲時日 三月二十二、三兩日間午後八時

◇主催 光州女子基督敎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光州支局

讀者優待映畫의밤

宣川

▲時日 三月二十一日밤七時半

▲場所 宣川劇場에서

◇主催 金永煥一行來演

◇後援 朝鮮日報宣川支局

定價六拾錢

少女歌劇と娘と母

婦人公論 4GWA 本日發賣 TSUGO

別冊附錄 青春詩歌集 手に取る感じからして詩のやうに美しい春の愛誦をあますなきもの!

若き日の歌…若山喜志子

女性の自主自立…徳富蘇峰

あゝ坪内逍遙先生…中嶋雄作

むつかしさ(藝術深園)…里見弴

少女歌劇熱診斷 杉田直樹

映畫が一時若い娘の心を支配したやうに、今では少女歌劇が娘さんの憧の對象となつてゐるのではなからうか？ 歌劇熱の因つて來たる原因とその心理を杉田博士は何んと解剖されるのでせう。少女自身にもお母さん達にも何等の反省もなく、美しいから綺麗だからと云つて浮かれてゐるうちに取返しのつかぬことになりはしないか。この邊で母と娘の反省を促す所以です

少女歌劇の女優になりたがる少女へ…ダン道子

★私のすきな歌劇スター(問ひ合せ)…諸家

少女歌劇を語る母と娘の会

□少女歌劇人氣スター物語 秋田次郎

(雲井浪子、天津乙女そして現在のターキーに到るまで人氣スターのエピソード史、歌劇の興亡史、兩劇壇の大パノラマです。)

お母さんとお嬢さんが一緒に歌劇を見て、お母さんに時代の距りはないか!

娘への手紙 野上彌生子

(結婚準備時代の敎科書、叡智の母野上彌生子女史が、世の若きさまに愛と知の呼掛をもつて叫びかける、愛の敎へ!)

親子別居が私の理想 安部磯雄

(慈愛の父安部磯雄先生が、親子別居を理想とされる御心底は何處にあるのでせう。傳統に捕れた家庭制度云々などの狹い偏見ではなく、眞に偉大な父性として、愛と慈愛の先生の面貌を髣髴して餘すなきもの。)

□親子は同居か別居か……問合せ

親子別居に答へる左の諸氏の顔ぶれを先づ御覽下さい。高島米峰、宮田多賀、青野季吉、芦田均、吉岡彌生、内田百閒、櫻井忠溫、窪川稻子、帆足理一郎、竹内茂代、中桐確太郎の諸先生

★本誌二十周年記念 賞金壹千圓原稿募集

春宵罪あり

春宵一刻直千金——古語ならずも誰かこの甘美なる宵の陶酔を知らざるものあらんや。共鳴に青春の悲歌あり、涙あり

山ざくらの君…下村千秋

どうした不覺…龍ささきふさ

ぱあすねんとうえいぶ…岩崎榮

一絃琴…横山美智子

夜の手紙…深尾須磨子

白木蓮と女…平野零兒

野澤の女…細田源吉

人間坪内逍遙先生…木村毅

近きていよいよ偉人の光を燦なり

□尼將軍北條政子(日本女性列傳)山崎紫紅

□思春期の子を持つ母へ…小原國芳

詩の夕ゴール卿(印度留學日記)入江靜代

□經濟講話…小汀利得

□今日の政局…御手洗辰雄

□社會時評…(山川菊榮・市川房枝) (?)

□國際情報…清澤洌

春！青春の讃歌を見失ひし人達の淋しい手記。どんな理由はあらうとも私達は溫い手を差のべて不遇の友を救はねばならない！ 春にそむくはらから!に注ぐ私達の涙は何か！

素話 結婚をあきらめねばならぬ私

盲ひゆく私ゆゑに…山城君美子

【批判】犧牲の勝利…吉原りゅう子

誤れる犧牲の悲劇…岡田道子

【批判】諦めは尚早…金子しげり

愛すればこそ…小林千代乃

【批判】神の愛をもつて…柳原燁子

女にかへる日の告白 增田富美子 (男裝の麗人)

死から蘇つた男裝の麗人の手記です。この手記の底に含まれた問題は何であらうか。此處に到る富美子さんの青立ちと環境は？ そして同性愛から逃避行の動機は？ これらをめぐつて私共に反省させられるものは何であらうか。飽までも女性全體の問題であると思ふ。此の意味に於て讀者の方にこの一文に對する批判を求めます。左規定御一覽の上一人殘らず應募して下さい。

(應募規定) 枚數四百字詰原稿十枚まで。締切—三月二十七日 賞(一等)第一席五十圓。第二席三十圓。第三席二十圓。(各一名づつ)

【批判】增田富美子さんに望む(富美子さんの誘惑は何處にあつたか、河崎先生はどう答へられる?)……河崎なつ

富に呪はれた戀の破綻(先に本誌に寄せた「農民と共に亂るん」の筆者高橋トクさんが、富と愛との相剋に、戀人の守屋氏から去るまでさる、に到つた前後の經緯の眞相である。)……吉田はな子

微苦笑の過去(働きながら父なき愛子を育てる母の偉大なる愛と犧牲の物語)……加藤久子

悲しき愛の末路(或る女探偵に秘められし數奇なる生涯の秘錄)……赤松月船

情熱の詩人啄木 高橋康文

あの心の底を抉るやうな歌！ 啄木はいつまでも私共の心にまかせなくてゐる。その波亂萬疊の生涯は？ 天才の薄幸なる運命は彼の面影を映してあまけんやきも在りし日の

よき生活は絶えざる工夫から！ 健康で澄明で樂しい生活の爲めに、生活の美容を特輯しました。家庭の内に外に、近代人

特輯 美容研究室

□生活の美容…山脇道子

□美容の設計…マヤ・片岡

□肌は健かに…吉行あぐり

□髮はつややかに…壬生瑛子

□男子服裝のAとΩ…長谷川修二

□正しい剃刀の使用法…芝山みよか

□ヴアニテイケイス…ミブ・エイコ

□眉・睫・生え際…近藤秀子

が心得ふべき趣味生活の又なき指導書です。となたも明るくそして美しい花の四月に我が代の春を謳へるための準備に是非

□食慾のハイキング…ささきふさ

□春の園藝…婦人公論花の店 永島四郎

□ネクタイの作り方…(洋裝相談)杉野芳子

この一書を!!

盛裝 横光利一

春宵の夢にも似て、五彩の虹の色とりどりにもまして美しい横光氏の小說を愈々佳境に入つて來た。誰か春宵の夢を贖ずるものなからん!!

青空士官…吉川英治

虹の花…野上彌生子

野麥の唄…林芙美子

◇

露を厭ふ女…白井喬二

祖國の娘…倉田百三

松井須磨子…平野止夫

中央公論社

東京・丸ビル・五階

産 소

緬羊의民間飼育 四千頭를突破

朝鮮內總頭數五千四百餘頭 預託前의現狀調査

緬羊의配給時期를압두고 農林局에서는 飼育狀況其他調査에奔忙하고잇다는데 그中에서飼育現在頭數、戶數及民間飼育數의調査가完了되엇는바 總頭數五千四百三十一頭(內三、一三二는고리데루)總戶數는百四十五戶에達한다、그리고 그中에民有가四千十一頭、農會其他公共團體所有가 九百六十七頭、總督府種羊場其他官有가 四百五十三頭이오 各道別은다음과갓다

京畿道一五頭(四戶) 忠北九(二戶) 忠南八五(三戶) 全南一一(二戶) 慶南一〇(二戶) 黃海七(二戶) 平南一三七(二〇戶) 平北五七(九戶) 江原三二五(二五戶) 咸南七三七(二〇戶) 咸北四〇四七(五六戶) 計五、一四三(一四五戶)

이밧게 疾病等에關하야서는三月末現在를 調査中이라한다

牙山郡內各金組 麥肥九千俵購入

【牙山】忠南牙山郡內 四個所金融組合에서는 一般組合員들의便宜利益을 圖謀키爲하야每年麥肥共同購入을 斡旋하든바 今春에도 例年과가티安母尼亞、加燐酸等肥料를九千三百俵(價額三萬九千六十九圓三十錢)를 購入하여配付한다고한다

京城軌道電化計畫

京城軌道에서는 東大門外의軌道를 電化하기로決定하고東拓에對하야 資金融通을申込하고잇는데同社는現在資本金三十萬圓內二分一의拂込를하는外에 東拓으로부터 二十一萬圓의融通을受하고잇다

慶北大口魚好漁 一月中四十五萬餘尾

價額으로十三萬餘圓

慶北大口魚 一月中漁獲數量은四十五萬一千三百三十八尾 價額十三萬七千三百七十九圓四十五錢으로 前月부터의好漁가繼續되는關係로 豫想以外에好況이라는바이것을前年同期에比하면 數量에잇서서는 四萬七千七十七尾의減이나價額에잇서서는 三萬七千五百七圓六十四錢의增加라한다

朝鮮產麥酒 運賃割引

鐵道局에서는 永登浦發의麥酒에對하야 三月十六日부터 明年二月二十九日까지 車扱은普通貨物의二割引 車扱은二割五分引으로取扱하기로되엇다는바 責任噸數는八千噸이다

鎭南浦苹果 加工品好評

今後의發展策講究

苹果의產地鎭南浦에서는 當地苹果出荷組合의 多年研究의結果苹果를原料로하야 苹果水晶크림、苹果液體크림、無色苹果化粧水、白乳苹果化粧水等의 優秀한化粧料를製造하기에 成功하야最近內外各界에試驗的으로 分配한結果大大的好評을어더 今後의發展을策하고잇다한다

務安郡棉花出廻 五百萬餘斤

◇全朝鮮出廻高의一割强

【木浦】今年度棉期(昨年十月二十日共同販賣開始日부터 今年三月十日閉鎖日까지)에 對한全南務安郡棉花出廻高는 五百八十六萬三千一百三十九斤으로서 當初郡當局의 腹案인 一千萬斤突破豫定에比하야는 風水旱霜等으로因하야 엄청난不振을示하엿스나 全朝鮮出廻高五千三百餘萬斤에比하야는 實로一割强이며 또本郡前年度六百七十一萬四千六百九十四斤에 比하야는 數量은 훨신減小하엿스나 前年度一等百斤最高價格十八圓五錢에 對하야 今年度는 二十圓八十五錢 임으로農家經濟는 別打擊이 업다는데 等級別出廻의數字를보면다음과갓다

一等 一、八三五、三〇七斤
二等 七四二、一一三
三等 一、三一四、六六八
四等 六三三、七八四
五等 三三七、二四九
計 五、八六三、一三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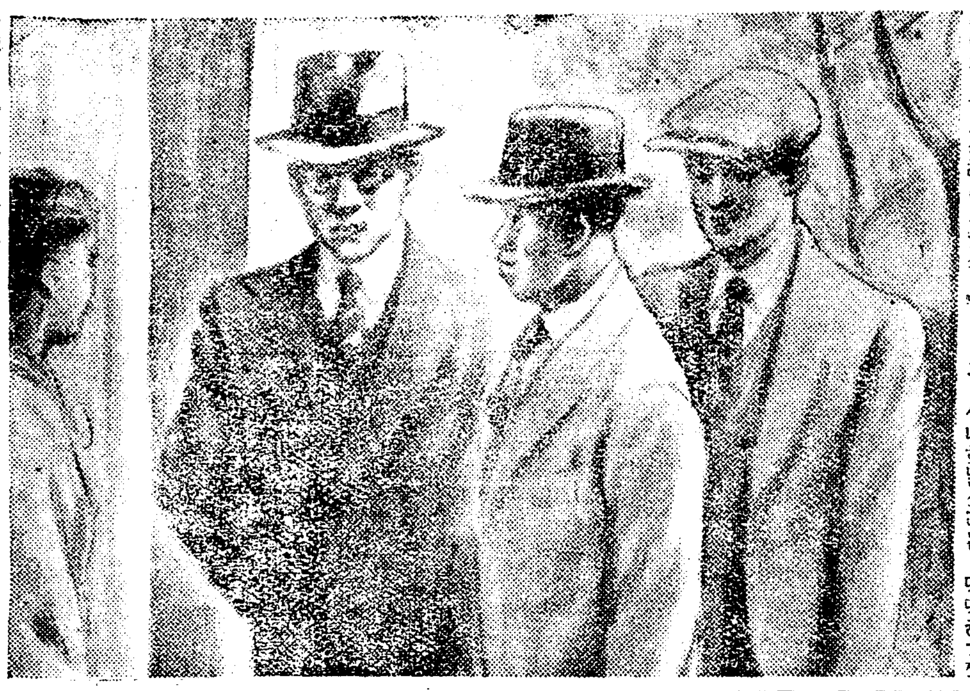
朝滿關稅調印 四月中旬頃

二月上旬京城에 開催된北朝鮮의日滿稅關共同檢査實施에 伴하는朝鮮滿洲關稅細目協定은 當時相當히 難色이잇슴에도 不拘하고兩當局의讓步로 協定이成立하야目下兩事務當局間에서 協定案의整理를急히하고 잇는데朝鮮總督府案은이數日中에 總督의決裁를經하야決定을 보게되엇다 따라서總督府는 朝鮮總督과滿洲國財政部大臣間에行할 調印問題에對하야近近駐滿大使館을 通하야時日其他具體的折衝을 開始하게될터인데 다만閣議에서 決定한基本協定에 滿洲國側이不滿을가지고아직 最終的協定成立까지이르지아니햇기때문에 自然細目協定의調印도 遷延되리라고 豫想되다 그러나 實際로보아 北朝鮮의稅關共同檢査는 早急히解決을要하는 事情에 切迫 해잇스므로 滿洲國側으로서도 細目協定의調印問題가 具體化하기前後에基本協定도 正式調印에까지 이르게할意向이라고 傳하고잇다 그리고 細目協定은 交換協定이아니므로 正式調印에는 朝鮮總督과 滿洲國財政部大臣의 出席이必要한데 結局代理를 派遣하게될것으로 四月中旬까지에는 調印하게될것이다

暴風前夜 (116)

咸大勳 作 金熊超 畵

호외(二)



『여기 김성희란여자잇소?』

주인을 불러가지고 문을열라고 소리치며 드러온 사나히들의말소리는 대단히 와살스러웟다。

『네! 어듸서오셧세요?』

혜숙의어머님의 말소리다。

『우리는 ××경찰서 고등계서 왓서요? 김성희란녀자가 여[illegible]이서요!』

그 사나히말소리는 딱딱하기짝이 업다。

『네! 잇슴니다 그런데무슨일이예요?』

『잠간 물어볼 일이 잇서 그리는데 좀 불러 주시지오』

다른 형사가 조금 부드럽게 이러케 말하엿다。

안방 툇마루로 드러와서 하는 그들의 말 소리는 성희가 모조리 들을수가 잇섯다 그래서 성희는 마음을 넉넉히해서옷을 가려입고 안저잇섯다。조금잇다 혜숙이 어머님이 방문을 열고 드러와서

『너ㅡ 무슨 큰일이 잇는 모양이다 ××경찰서 형사들이 너한테 무엇을 물어본다는구나……』

하고 겁이 난 태도로 말을 조용히 한다。

『네! 머ㅡ아모일 업서요!』

하고 성희는 얼골에긴장한빗을 띄웟스나 가슴은 왠심인지 울렁거렷다。

『나가보라니?』

혜숙어머님이 또 나즉한목소리로 말을햇다。

『네……나가보지오!』

하고 성희는 용긔를내어 벌떡 이러서서 혜숙어머님의 뒤를따라나갓다。

『당신이 김성희요?』

키가크고 금테안경을쓴 형사가 물엇다。

『네……』

성희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대답햇다。

『잠간 물어볼말이잇스니깐 서(署)까지 가티가시다』

『네……가지오』

하고 성희는 그뒤를따려섯다。 걱정스러히 문턱에서고잇든혜숙어머니는 수운어린얼골로

『글세무슨일이오』

하고 말을 좀공손히하는 키큰 형사한데뭇는다

『곳나옵니다。잠간만다리고갓다 올테니깐 염려하지마십시오』

하고는 성희편으로 얼골을 돌려가지고

『자!갑시다』

하고 성희를독촉하야 그들형사대는 나아간다! 문밧게는 자동차가 기다리고잇다 성희는두 사나히틈에끼여 차에올라탓다 그리고 운전대엽헤 형사하나이 또 올라타자 자동차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가회동서 ××경찰서까지는 그리멀지안엇나 한오분간이나 걸려슬가 우중충한××경찰서로 성희는 세형사에게 호위되여 들어갓다。

그리고는 이층으로 올라가의인편쪽으로 꼬부라진곳에

『고등계』

라고 써부친 문을열고 드러갓다 거긔는 경찰서갓지안케 정복을입은 사람은 하나도업고전부가 세비로양복을 입은것이무슨 행정관청가탓다

키큰형사가 어떤뚱뚱한 사나희에게로 갓가히가서 무슨말을 수근수근하엿다 아마 고등계주임인모양이다 조흔책상에 회전의자까지 틀고안즌양이 떡도위엄차보혓다 그리고 무서워보혓다 조금잇다 키큰 형사는 성희에게로 갓가히왓다 그리고서는 또어듸로가자고 다리고 그 문을나아온다 성희는 절에간색시모양으로 가자는대로 따려갓다

『조금물어볼말이 잇는데 잠간 여긔서 기다리시오』

키큰형사는 조그마한방으로 끌고가서한구석의자에 성희를 안치우고는 어대로인지 나가버리고 만다 거긔는 정복한순사가 두어사람안저서 무슨서류를 만들고잇다가성희가 드러오는것을 보고 힐끈 한번치어다 보고는 다시 서류를 뒤적그리고잇다

山羊의實際智識 (二)

江陵山羊牧場 崔鍾夏

三、山羊의種類

山羊은 種類가多數인데乳用種이그主要部이며 『사넨』、『토겐부루』、『누비아』、『말타』、『알푸』、『分일三벨드』等이 이에屬하고肉用、毛用도잇고 毛色은白、黑、褐、灰、班紋等이잇다。毛의多少長短、角의有無等이잇는데 代表的으로는 『사넨』과『토겐부루』種이다。

(가) 『사넨』種─이것은『스위스』國『베룬』縣『사넨』溪의原產인대 白色無角이다 改良不完全한것은有角도잇다 體重은平均十六貫이고 乳房이充分히發達된것中에는三升四合級이잇고 二升級은稀貴하지안으며 乳用山羊의大部分을占領한것이다

(나) 『토겐부루』種─『스위스』國『토겐부루』溪의原產인대 褐色無角이고 山羊特有의惡臭가업고 乳量은十個月一乳期로 三四石乳汁을產出하나 朝鮮에는이種類가稀少하다

四、山洋分別法과 그價格

多乳羊을 如何히 判別하고 그價格은 幾何인지?

(1) 乳用山羊의分別主眼點은그 乳量에잇다。

(가) 多乳羊은 多食羊이고大躯羊임

(나) 口唇이廣大한羊이多乳羊임

(다) 後軀가楔形인것이乳房이發達함

(라) 肥滿하지도안코 過瘦하지도안은것

(마) 骨格이 늠늠하고毛髮이 曲縮치안은것

(바) 狹顏美貌인것

(사) 的確한分別法은 乳房을 直見하고 二日間搾乳하는것

(아) 健康狀態는 眼瞼과口唇의血色이濃紅이고動作이 敏活하고元氣잇는것

(자) 年齡은 下顎門齒를檢査해보면五歲以下는 分明히알수잇스니 一歲는門齒(永久齒)八個가均等하고 二歲는中央二個가突起하고 三歲는四個、四歲는六個、五歲는八個가 發生하는대六歲以上은 確實히알기어렵다。

(2) 山羊價格

山羊은 다른物品과 달라一定한 定價表로 表示하기 어려워 種類、血統、乳量、年齡、體質、外形美等에依하야 相異하나 大概如左하다。

等級(最高乳量) 値段及種羊

(A)사넹 牝羊
一升級……卅圓―卅五圓
一升五合級 四十圓―五十圓
二升級……五十圓―七十圓
二升五合級七十圓―一百圓
二百圓

(B) 種羊(牡羊)은 四十圓以上 (續)

春向洋服市價의半賣以下特賣

絕對全責任付 不合返金·換品自由

大量生產의直賣、地方小賣値의半値以下

注意 洋服은特大型、大型、中型、小型、別大型의六種이오全部價格은同額。特大型은身長五尺六、七寸、體重十七、八貫의人。大型은五尺四、五寸、體重十四、五貫의人。中型은五尺三、四寸、體重十二、三貫의人。小型은五尺一、二寸、體重十一、二貫의人。別大型은五尺七、八寸、體重二十貫의人

右의身長體重의相合한이이면注文品同樣잘맛고모양조흔洋服임

流行杉柄フラノ地洋服
青年向三ツ揃一着 五百着限 大特價 八圓八十錢
青年向本年流行上等フラノ地、色合은春夏向의淺淡色、三、四月頃으로六、七月頃까지着用됨

春夏向格子柄ツイード洋服
高級青年向三ツ揃一着 十六圓
青年向格子柄年中의春夏向에好評、生地는極上等淺色임 三、四月부터六、七月頃까지着用됨

春向小格子柄セル地洋服
中年紳士向三ツ揃一着 十四圓五十錢
中年紳士向의小格子柄セル地로裏는アルパカ又는朱子總裏付로 高尙한中年向의品임

春向青年兩前オーバ特價
生地는フラノ地로서柄은海立柄과杉柄이잇다、本年流行青年向兩前バンド付
兩前型バンド付 一着 八圓八十錢
丈僞尺 二尺八寸、二尺九寸、三尺、三尺一寸同値
特價品은二千枚限賣切될時는拒絕함

春向紳士用クレバーオーバ
春向薄鼠、薄茶의無地의薄地임으로六、七月頃까지着用될高尙品
特品 一着 十二圓
並品 一着 五圓八十錢
片前型 丈僞尺二尺六寸、二尺八寸、二尺九寸同値

春向高級ゼフアー地トンビ
生地는純毛ゼフアー地로서極淺色의紋織임으로極히高級品의紳士用이다。注文하면三十圓以上의品
丈僞尺 三尺四寸、三尺五寸、三尺六寸同値
大特價 一枚 十六圓

春向紺黑セール洋服
紺과黑이잇다仕立入念으로한一般用이다 裏는上等洋朱子總裏付
背廣三ツ揃 特品 十一圓 上品 八圓五十錢
詰衿上下 特品 八圓五十錢 上品 六圓五十錢

各學校指定型 女學生洋服 水兵型 スカート付

紺セール純毛特品女學生洋服 特製厚地로仕立함 スカート付一着値段

尺八寸	一、二年用	三圓三十錢
二尺	三、四年用	三圓五十錢
二尺二寸	五、六年用	三圓七十錢
二尺四寸	女學生用	四圓二十錢

紺セール純毛上品女學生洋服 スカート付一着値段

尺八寸	一、二年用	三圓
二尺	三、四年用	三圓二十錢
二尺二寸	五、六年用	三圓四十錢
二尺四寸	女學生用	三圓八十錢

黑サージ學生用洋服
◎生地는極上等純紗毛、朱子裏付金ボタン付仕立入念
◎小學生用의트를한것長ズボン付갓은短ズボン은各十錢廉

尺二寸	一、二年生用	三圓七十錢
尺三寸	二、三年生用	四圓
尺四寸	三、四年生用	四圓三十錢
尺五寸	五、六年生用	四圓八十錢

製造直販元 名古屋市東區千種町(古井坂電停前) 合資會社金城商會販賣部 電話東五三二一四(振替名古屋一七六)

田村家傳 淋病消渴藥
本劑服藥後は全身一齊淋菌及毒素の破壞現象を惹起し服藥を重ねるに從ひ止病止淋排散して直効あり
七日分 一圓八十錢 十四日分 三圓五十錢 二十一日分 五圓也(說明書呈) 難病者は申込あれ
大阪港區九條中通二丁目 發賣元 樂天堂

便紙라면 뭐이나 다 아는
日本第一의大好評書 完備寶典
愛讀者大奉仕 特別景品付亂賣!!
▲組合式과新案辭典式의長處를採取하
▲新時代에適應한新講義의無比的名著
一名 大手紙寶典

本書는書翰文講習會에서十數年苦心한結果編成된最新式考案의理想的『尺牘講義』의寶典인즉一次册張을젓치면아모리片紙쓰기서투른이라도生覺나는대로片紙를숨숨即席에서쓸수잇소、本書는書簡文의初步로부터說明하야片紙文의法則△日用文△商用文△候文△葉書文△口語文△男女間愛의片紙△趣味片紙文其他모든片紙쓰는法과數百의文例를揭하야親切히講述한바實로便利調法此外에업슴
定價三圓이나 大特價壹圓四十錢

二大附錄付 第一附錄(西版印刷) 三體草字辭典 第二別册附錄(四六判百頁) 日常 願屆書法 一名代書人無用

體裁 縱六寸橫四寸總紙數附錄共百餘頁 總クロース金字入豪華版特上製美本箱入
●前金小包送料廿錢 代金引替은ハガキ申込次第 [illegible]

無代進呈 特別景品 流行型腕卷クローム側優美 時計形磁針指針正確保證付 實物寫眞
●이特別景品은箱子에는어註文
●書籍과同封包裝으로嚴重히小包
●郵便으로送付함

景品進呈 『朝鮮日報』愛讀者라고明記하사『手紙』註文者에本書普及을爲해大宣傳으로上記實物寫眞과如한特別景品을無代進呈

發賣所 東京市京橋區銀座西二丁目 振替東京三二八二一番 東亞堂本店

모루히네 其他塩類中毒에 福 모나ー루
元賣 大阪 田邊商店

女性의生命線을死守한
中將湯 (중장탕)
CHUJOTO

中將湯은봄도쓸쓸하게한婦人疾患을征服하고明朗한健康美를創造함

앗질한眩氣가나고 엇던지 몸이늘이하는것은 今後가장注意를要할婦人病의警報입니다

이런때信用잇는 中將湯으로治療하는것이 무엇보다必要하다

─主效─
上衝頭痛 眩暈
腰冷病 月經不順
下腹疼 히스테리
神經衰弱 子宮病
帶下症 肩凝、感氣
產前產後 浮腫 임뎟

(定價)
試用分 .30
3日分 .50
7日分 1.00
15日分 2.00
23日分 3.00
40日分 5.00
85日分 10.00

本舖 津村順天堂

三月十八日封切 二大作新立封切 今週에限하야 上映時間은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半 午后三時半 午后七時十五分
◆(Columbia)社超特作日本版 巨匠 하와드·혹스監督作品 特急廿世紀 쫀·바리모어氏 캐롤·롬빠ー드孃 主演 名作家와名監督과名配役의一大트리오에依한本編의聲價는世間에喧傳된지오래다、當代最高의傑作!
◆(Columbia)社超特作日本版 名匠 푸랭키·뽀세기監督作品 青空天國 스펜샤·트레시氏 로레타·영孃 主演 珠玉갓흔感傷詩ー눈물에피여나는사랑의꼿 다빌·作品 價値는完璧!
◆木下發聲映畫超特作品 ホロリ涙の一ト雫 三上良二監督作品 全發聲
R·O·L超特作 エノケン青春醉虎傳 山本嘉次郎監督
全鮮第一映畫殿堂 團成社

◆三月十八日大早日特別大公開 晝夜三回映第二週!!
◎新興키네마社特作現代劇 監督 高見貞衛氏 海洋明朗篇 裸オンパレード 全七卷 現代時代劇部男女優總出演映畫 快男美女總出動하야海洋에서明朗히하로를보내는輕快한內容을가진優秀한作品이다!
◎R·K·O社超特作音樂版 監督 主演 리·프랑크氏 社會悲劇 뭇거린의英雄 全七卷
최푸링의映畫! 多言을不要하는好評絕讚篇이다!
◎유ー니버살社超特作無聲版 監督 윌니암·포ー덴氏 喜活劇 空中騷動 全十卷 죠ー지·지도니氏 화ー링·맥도날드孃 主演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鍾路五丁目 第一劇場